ELIO’S LITTLE DISCOVERIES

Again: Rain Outside, Friends Inside

다시 차례로: 비, 두드림, 문 열기



8세 · Day 023 · 함께 읽기 · 4장면



Rain tapped against the closed window. Elio watched the garden from the dry room. The bench beside the door had space for a friend.



Then Elio heard a gentle tap. It did not come from the window. It came from the door, so he turned to look.



He opened the door. Bori stood under the porch roof and lifted a wing. Elio waved and moved aside so his friend could come in.



Inside, Elio took a soft towel from its peg. He offered it to Bori and waited. Bori reached out for the towel.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비는 밖에, 친구는 안에」의 앞 네 장을 다시 펼쳐요.

함께 읽을 때

‘Then’으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잠깐 멈춰 다음 장을 예상해 보게 해요.

생각 나누기

문을 열기 전과 후에 방 안의 공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활에서

비 오는 날 현관에서 우산을 두고 오는 순서를 말로 이어 봐요.

《비 오는 날의 방문》의 같은 여덟 그림에 문장을 늘린 함께 읽기 판이에요. 보호자가 낯선 표현을 도와주고 한 문단씩 나누어 읽어요. 앞의 소리 연습만으로 혼자 읽도록 만든 자료는 아니에요.

ELIO expanded reader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